

News

은행 건정성 좋아졌다… 지난해 BIS비율 15.53%

조선비즈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전년말대비 0.53%p 오른 15.53% 기록… 보통주자본비율 12.99%

대출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5.9%로 증가했으나, 이익확대 및 증자 등으로 자본이 9.7%로 더 크게 증가한 영향 때문… 작년말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 상회

은행권, 새 정부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해달라"

한국경제

은행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신사업 진출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 최근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업종 관련 체계 마련되어 참여 필요 주장
금융 규제 완화와 자율 경영 확대에 대한 요구도 문건에 담아… 인수위 추진중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도 과거 10년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

은행 유동성·예대율 7월부터 다시 조인다

파이낸셜뉴스

은행권 예대율 규제, 오는 7월부터 정상화… 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된 점 고려해 유연화 종료되는 금융 규제에 대해 단계적 정상화 추진
다만 외화 LCR 규제비율은 올 7월부터 70%에서 80%로 정상화… 하반기부터 대출금만큼 예수금 보유해야…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 적용 유예조치는 추후 재연장 검토

부산은행,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흥행…모집물량 2배 모집

연합인포맥스

BNK부산은행,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모집물량의 2배 이상 받아내며 흥행 성공… 1,100억원 규모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수요예측에서 2,240억원 자금 받아…
부산은행은 1,500억원으로 증액 발행하기로 확정… 최종발행금리는 연 4.3%로 결정… 5년 콜옵션 조건 달려있어…다음달 7일 발행 예정

내일부터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손보사는 웃는다

이코노미스트

550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올 4월부터 자동으로 마일리지 특약 할인 혜택 받아…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낮춰 이득될 것으로 기대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대폭 확대되는 셈이라 현재보다 보험료 환급액 늘어날 것으로 보여… 총 2,541억원… 원수보험료 총 약 20조원임을 감안하면 큰 부담은 아님

"ESG경영은 어디에"…역대급 실적·성과급 손보사, 기부금 13.7% 줄여

아시아투데이

5개 손보사, 작년 총 순익 3조 2,564억원으로 전년대비 50.6% 증가했으나 기부금은 평균 13.7% 감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사회공헌활동 제한적이었던 것이 감소원인
가장 크게 줄인 손보사는 삼성화재로 작년 대비 36.2% 감소… DB손보 14.4%, KB손보 11.8% 감소… 작년대비 비용 절감… 수익 대부분은 성과급으로 지급

KB증권, 예탁금이용료 0.42%로 올려 '업계 선두'…인상 경쟁 고조될까

아시아투데이

KB증권, 투자자 예탁금이용료율 0.42% 적용해 업계 최고 수준 인상… 노무라, 모건스탠리 제외하면 국내 48개 증권사 중 가장 높아…
기준금리 인상 때문… 그간 다른 증권사들이 투자자 예탁금이용료율 줄인 이유는 이용료율이 낮아진 영향… 투자자 환원조치 강화 의도 아니냐는 기대감

업황 부진 속…삼성증권 외국인 지분율 '눈에 띄네'

에너지경제

삼성증권, 주요 증권사 중 외국인 지분율 최고 수준 기록… 외국인 지분율 총 30%에 달해…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 모델 발굴이 주주관심으로 이어져…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 안정적 실적, 고배당 정책 등이 맞물려… 중장기 투자처로 매력적이라는 관점 존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